



Sector Comment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금융정책, 경기부양에서 경쟁력 제고로 전환



극적인 인식전환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정책 일변도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중심으로 바꾼 것이다. 코로나19에서도 금융산업이 더 이상 수익 창출 능력을 잃어 버릴 경우 한국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자산관리 서비스업에 필요한 서비스 및 수수료 체계 조차 미비하다. 고객 신뢰도 제고에 이어 혁신적인 사업모델 구축, 유통회사, IT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 플랫폼 회사 대비 경쟁력 제고가 급선무이다.

>>> 정부,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정부는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사에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 주요 내용은

- 1) 핀테크사 전유물로 알려져 있던 MY DATA 사업을 카드사에 허용
2)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의 판매, 자문서비스를 허용
3) 가맹점 카드매출 등 보유 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CB업을 허용
4) MY DATA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플랫폼 비즈니스 업무 허용
5) 부수업무인 렌탈 취급 대상확대, 레버리지 규제 완화 추진

>>> 금융회사의 BIG DATA 서비스회사로 전환의 기반 마련

네이버, 카카오(은행) 등 혁신적 플랫폼회사와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사업모델을 획기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임. 따라서 대상이 되는 카드업계 뿐만 아니라 계열사를 두고 있는 4대 금융그룹의 경우 매우 긍정적인 뉴스임. 구체적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 금융회사에 MY DATA를 허용, 금융 플랫폼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등과 제휴한 일반 플랫폼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임. MY DATA 사업을 통해 얻은 지급결제 데이터는 개인의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빅데이터로 향후 대출, 보험을 넘어 유통산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2) 약화된 자산관리업 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임. 4대 금융그룹의 경우 MY DATA를 통해 얻은 개인의 자산 정보, 잉여 현금 흐름 정보를 파악해 이에 맞는 적절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 카드사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데이터 서비스회사로 성장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임. 개인사업자 CB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자회사 형태로 가맹점 정보 획득에 필요한 POS 서비스 회사, 정보서비스 회사 등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카드사가 사업모델을 다양화 할 계기가 될 것임

>>> 신용카드사와 점유율이 높은 대형금융지주회사 수혜

이번 정부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형 금융그룹, 카드업계에 매우 긍정적인 뉴스로 평가함. 업체별로는 확고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대형금융지주, 카드사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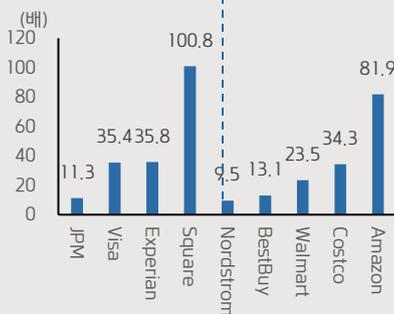


은행/카드

Analyst 서영수

02) 3787-0304/ysyoung@kiwoom.com

빅데이터 회사와 Legacy 회사간 PER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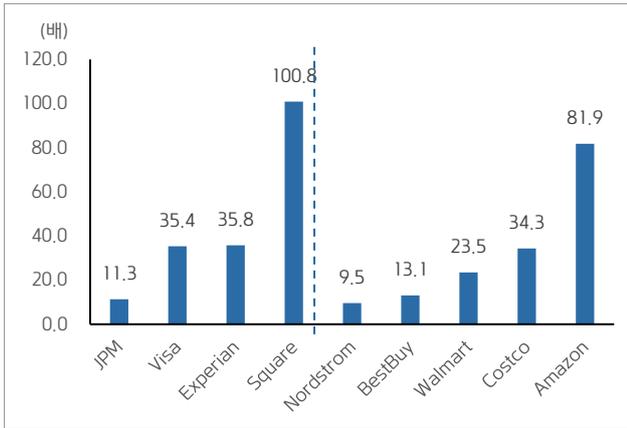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키움증권
주: Trailing 12M PER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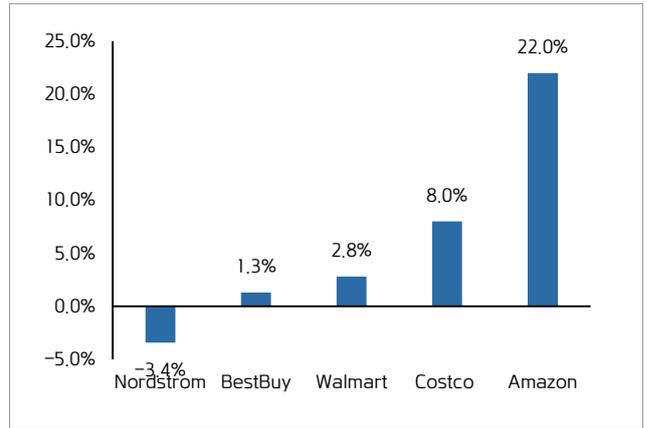
- 당사는 03월 0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빅데이터 회사와 Legacy 회사간 PER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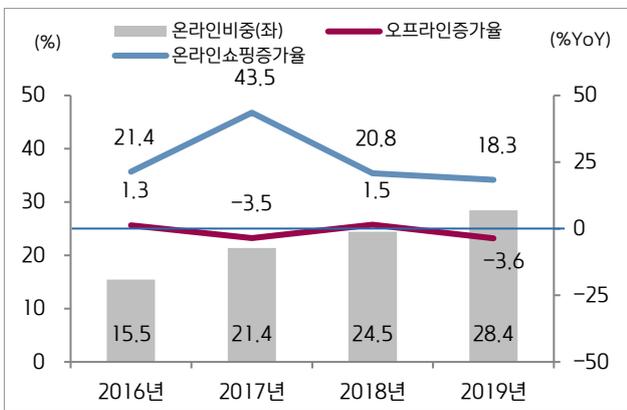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키움증권  
주: Trailing 12M PER. 3월 2일 종가 기준

빅데이터 회사 & Legacy 회사 '19년 매출 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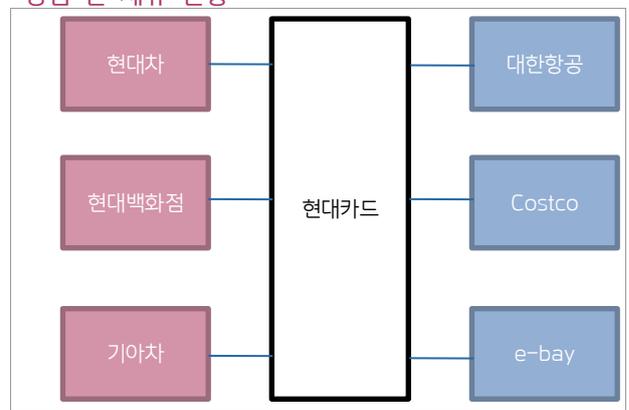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키움증권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매 판매 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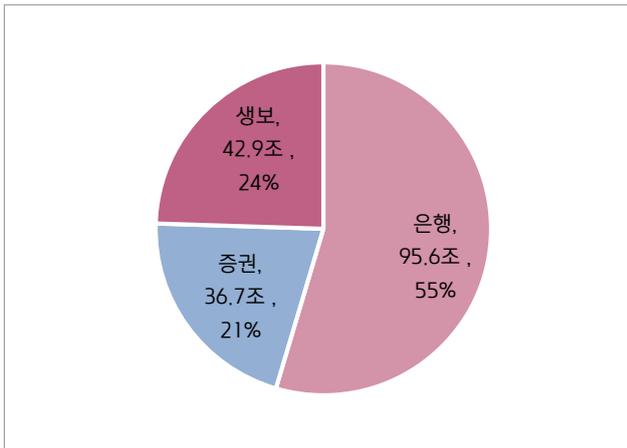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키움증권

온라인 플랫폼사와 경쟁을 위한 현대카드와 대형 가맹점 간 제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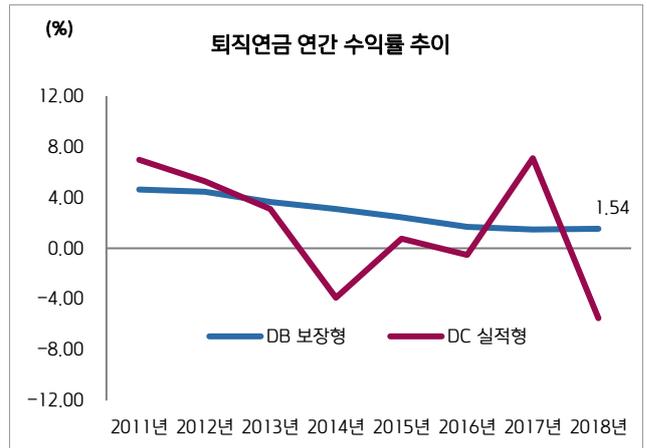
자료: 현대카드, 키움증권

은행 주도로 형성된 퇴직연금 시장



자료: 통계청, 키움증권  
주: 2018년 기준. 조원 단위

퇴직연금 자산관리, 향후 MY DATA 의 핵심 사업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키움증권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업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주가 상승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주가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19/01/01~2019/12/31)

매수	중립	매도
97.33%	2.00%	0.67%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